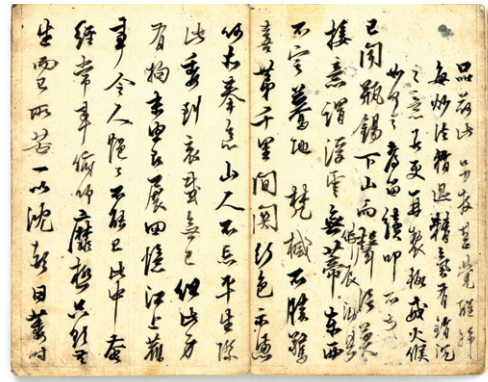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차 두는 법 지나쳐 정기 사그라진듯”

조선 후기 금강산은 승속을 불문하고 누구나 유람하기를 열망했던 승경지였다. 초의스님이 처음 금강산 유람을 계획한 것은 1834년의 일로, 이 해 가을, 그는 제자 취연과 함께 유람을 계획하고, 철선(鐵船 1791~1858)과 만휴(萬休 1804~1875)도 함께 가려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신현(1810~1884)의 <금당기주>에 ‘두 선사가 산천(김명희 1788~1857)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했다. 초의는 천리 길을 달려와 약속을 지켰지만 산천이 병이 나서 그만 두었다’고 한 것을 통해 저간의 사정이 밝혀지게 된 셈이다. 그가 다시 금강산 유람을 도모한 것은 1838년 봄의 일이다. 이 편지는 <완당전집>(여초의) 8과 <주상운타>에 수록된 것으로, 소치에 대한 언급은 문집에만 수록되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이미 그대가 (대둔사)산을 내려왔다고 하는데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마치 뜬 구름이 뿌리 없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뜻밖의 그대 편지에 놀랍고 기쁜 마음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천릿길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산인(초의)과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이인데 이즈음에 나를 찾아 왔으니 애달픈 마음 멈추질 않습니다. 다만 이 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만나 강상의 옛 일을 회상할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언뜻 상사(常事: 부친의 제사)가 지나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살펴보아도 망극하여 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고통스러운 병도 더욱 깊어지고 날로 시들어지고 때로 스러지니 (이) 또한 (운명에) 맡길 따름입니다.



도판은 <주상운타첩>이다.

다. 머물고 있는 해암(海庵)에게 언제나 머무실 건가요. 가까운 절은 갈만 한 곳이 없을 듯하고, 또 이곳에서 연락하기도 여기보다 나은 곳이 없을 듯합니다. 다른 번거로움이 없다면 방편으로 삼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만난 회포를 풀기 약도 인연을 따라 얻어질 것이니 다시 도모해야겠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것을 누가 다시 막겠습니까. 다만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에 나를 한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보낸 차품은 심폐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만큼 좋지만 매번 차를 두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 듯합니다. 만약 다시 만든다면 (차를 두는 때) 불의 온도에 주의하심이 어떨겠습니까. 무술(1838)년 4월8일, 허소치의 그림은 과연 기이한 재주입니다. 어찌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의 소견은 낙서(윤덕희 1685~1776)의 호, 공재 윤두서의 말아들의 그림법을 배운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양으로 와서 배우게 한다면 그 진척된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남평 관아에서는 소식이 없습니까. 근

聞瓶錫下山而聲信莫接 意謂浮雲無蒂東西不定 驚地梵槭不勝驚喜 第千里間關行色示德 何等奉念 山人不忘平生 際此委到 哀感無已 但此身有拘 未由即展回憶江上舊事 令人悵悵不能已 此中奄奄常事 俯仰靡極 只欲無生而已 所苦一以沈頓日晏時銷 亦任之耳 住處當於慧庵始終也 近寺顧無可去處 且自此接連 恐無過是 能無他惱 可得方便耶 一展之期亦有因緣可得 且在再商耳 金剛之行誰復遊住 但行前與此一見亦佳 未知如何 茶品荷此?存 甚覺醒肺 每妙法稍過精氣有銷沈之意 若更再製 輒戒火候 如何如何 戊戌佛辰 許齋畫果是奇才也 何不携來耶 所見聞不過駱西一法 若使來遊京洛 其進不可量也 南平庵中無聲信耶

당시 추사는 1837년 부친 김노경의 사망으로 경향 중에 있었다. 초의가 상경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산인(초의)과는 평생토록 잊지 못할 사이인데 이즈음에 나를 찾아 왔으니 애달픈 마음 멈추질 않습니다’고 하여 서로 회유(回遊)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그가 초의차에 대해 ‘매번 차를 두는 방법이 조금은 지나쳐서 차의 정기가 사그라진 듯합니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초의차의 원숙한 경지가 추사의 조언을 통해 완성되었음을 확인케 할 뿐만 아니라 추사와 소치 허련(1809~1893)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힌 셈이다. 당시 소치의 그림을 가지고 상경했던 초의는 당대 최고의 감식안을 가졌던 추사에게 제자의 그림을 보여 준 것. 한 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가 아니었는가!



박동훈(중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평생 공부한 영어

김영로 선생 (영어불서 번역가)

“제가 약과 심한 고통으로 시달리는 불운한 중생들을 볼 때마다 마치 희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비록 제가 도움을 주고 큰 희망을 가졌던 어떤 사람이 이유없이 저를 해친다해도 제가 그를 저의 성스러운 스승님으로 보게 하소서...”(당리 땅바 보살님의 마음수행 팝송중에서)

매일 티베트 밀교 경전들을 읽고 번역하며 인생의 후반부를 불서 번역가이자 재가 수행자로 살고 있는 <영어수해>의 저자 김영로 선생(72)은 “불자들이야말로 영어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로 번역된 양질의 불서를 직접 읽으며 공부할 수 있지요. 제가 10년 동안 불교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저는 바로 이 공부를 하기 위해 평생동안 치열하게 영어공부를 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설명했다.

영어교재 편찬의 살아있는 전설

김영로 선생은 7080세대 대학생이라면 대부분 영어 공부의 필수품으로 들고 다닌 빨간색 <vocabulary 22000>과 <영어수해>를 펴내며 베스트셀러화 시킨 영어 교육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다.

이렇게 평생 영어 교재 편찬에만 전념해 온 그가 6년전부터 영한대역 <행복수업>과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등을 출간하며 문서 포교를 해오고 있어 불교계는 물론 세상을 또한한 놀라게 했다.

특히 명상 언어집 <김영로의 행복수업>은 티베트 밀교(密敎)인 금강승(金剛乘)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책으로, 영어로 된 밀교 경전과 잠언집에서 김씨가 전하고픈 내용을 추려 엮었다. 평생 영어로 된 글 읽는 법만 가르친 엄인지, 무상법(無上法)을 설하는 이 책도 영한대역, 원문과 번역문과 해설 순으로 정리했다. 영어 교사, 외국어 전문학원 강사 등으로 살아온 김씨는 1983년 쓴 수험서 <영어수해>로 일약 유명해졌다.

이후 퍼낸 교재마다 불타나게 팔려 나갔고, 그 가운데 밀리언셀러도 있다. 그런 그가 2002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의 인적 드문 곳에 터를 잡고 수행과 다름없이 살고 있다.

추상미술을 전공한 부인도 평화 그리는 불모(佛母)가 됐다. 종교적인 전연 생활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실은 난방비 아끼느라 실내 온도도 낮게 해놓고 사는 등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인세로 많이 받았음직도 할텐데 그 돈은 다 아꼈다는 조심스런 물음에 김씨는 “이곳 저곳 나가는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나는 예나 지금이나 하층민”이라고 답했다. 그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무척 말을 아꼈는데 그의 주변을 탐문해보니 “모두 사람들 도와주는 보시행 펴지다 그렇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2002년 스승 만나 탄트라 수행에 입문

김씨는 “참 회한하지요. 이곳으로 이사오기전 서울 구기동서 오래 살았는데 그때는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관음리로 오기전 제 아내가 관세음보살님 꿈을 꾸었어요. 그 이후 인근에 계신 탄트라 의 구루(스승) 법사님을 만나 밀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불보살들이 나를 수행의 길로 이끈 것



수행하고 있을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김영로 선생.

같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했던 적은 없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 책들 한 권이 저에게 빌게이츠의 수많은 재산보다도 더 값진다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부처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엔 풍족하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한 공부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하루 20시간 가까이 수행한다는 그에게 불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밀교에 대해 묻자 “부처님께서 준비된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전수한 가르침입니다. 즉 소수 정예자들인 엘리트들을 깨달음(空性)에 이르게 해 큰 기쁨(大樂)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근기에서만 공부할 수 있어 초심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육망과 고통마저 깨달음의 에너지로 환원해 무한한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이 밀교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꿈꾼다. 하지만 어느 순간 행복인 줄 알고 쫓아갔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갈팡질팡한다. 그 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길을 찾아 해낸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고민은 ‘행복’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서 ‘행복수업’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인기도 높다고 한다. 지금은 행복 수업이 필요한 시대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바로 김영로 선생이 지금 공부하는 탄트라 행복수업이라는 것이다.

수백권 불서읽는것도 행복 위한 수행방편

영어로 된 수백권의 불서를 읽고 공부하는 것도 바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제 그의 관심은 불교와 영어를 동시에 배우게 하는 것이다. 영어로 된 불서에는 기존 번역본보다 불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 이를

10년 동안 불서 번역하며 탄트라 수행 불교번역서 논리력 부재로 오류 많아
“영어경전 읽으면 불교공부 시간 단축”
영어교재 인세 대부분 보시행으로 사용
지금 공부하는 탄트라 바로 ‘행복수업’

소개하고 싶다는 욕구가 크다. 여기에 기존 번역 불서들을 훑어보니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

“영어 불서에는 용어의 엄격함과 비논리적으로 없습니다. 지혜와 깨달음의 불교엔 논리의 치밀성이 있지요. 바로 이질간의 결합은 논리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번역본과 원문을 대조하며 공부하는데 이질만 대면 알만한 유명 출판사의 베스트셀러 번역서들에서도 오류가 많이 눈에 띕니다. 부분 오류는 논리적 오류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부족하게 원인이라기보다는 치밀한 논리력과 사고력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불서들은 물론 불교적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는 불교의 치밀한 논리가 정확성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번역본의 오류는 ‘번역의 재번역’이란 두 단계 번역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티베트 불교의 영어 번역에 관심이 높다.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로 된 경전은 13세기 경이슬람의 침공으로 소실된 경우가 많지만 티베트는 외세침입이 거의 없어서 경전들이 보관이 잘 돼 있는 편이며, 산스크리트어 자체를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 스님들이 영어권에 들어가 영어경전을 많이 제작하기도 했지요. 티베트어 경전이 아닌 경우 영어불서를 많이 읽지 않으면 상징적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불서를 많이 읽지 않으면 밀교가 전하는 성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번역 작업도 일종의 수행

그는 번역 작업도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히 번역하려면 더 많이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불자들이 영어공부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를 물었다.


“우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순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읽으면서 이해되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 됩니다. 눈으로 먼저 보게 되면 감각이 굳어 잠기고 닫혀버립니다. 즉 자신의 책 제목처럼 ‘문맥순해’를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영어경전 읽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두려움을 갖고 쳐다보지 말고 알고 있는 내용처럼 내려다보는 자세가 영어를 쉽게 풀이하는 기본 방식이지요.”

그는 이런 방법으로 영어 불서를 읽다보니 불교 공부에 빠졌다고 경험을 말한다.

“불교 책 중에는 영어 문장 하나하나 옮겨 놓으면 그대로 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논리가 완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공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종사, 대중사 급만 동참 가능)
* 법학계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오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M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불교 공부 기초 공사



김영로 선생은 ...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를 졸업한 김영로 선생은 대학 재학중 코리아 헤럴드 주최 전국 남녀 대학생 영문 백일장에서 1, 2회 연속 장원을 차지했다. 특히 1983년 편찬한 <영어순해>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송문고 영어교사와 현대외국어학원에 재직하기도 했으며, 서울대 연대 고대 숙명여대 한양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1969년부터는 브리태니카 한국지부 문화부장으로 3년간 재직했고, <영어순해> <문맥순해> 등의 영어 관련 저서를 내다가, 2007년부터는 <김영로의 행복수업> 등의 불교 저서와 <산티데바의 행복수업> <한영 보현행자의 서원> 등 번역서를 출간했다. 법명은 부동(不動, 아찰라)이다.

벽하고 치밀하다는 근거지오. 광덕스님의 <보현행자의 서원> 영역 작업에서 절실히 느꼈지요. 옮겨서 그대로 말이 되면 논리가 완벽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설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고 언어의 장벽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리의 치밀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 티베트불교가 기여했고, 그만큼 티베트의 수행자들이 남긴 책과 가르침은 논리적이어서 영역 작업도 순쉬웠다게 그의 생각이다.

특히 <보현행자의 서원>중 핵심 내용들은 많은 이들이 읽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무료로 모 출판사의 달력에 가려 뽑아 주기도 했다.

60세가 넘어 보살계와 탄트라계를 받은 그는 결상 가초스님의 영어기도문을 외는 것이 일이다. 가초스님은 영국서 선원을 열었고 <금강승의 전파자>로서 티베트불교를 국제무대에 폭넓게 알렸다. 그가 공부한 티베트 스님들의 경전과 책은 논리적 치밀함이 매력이었다. 여기서 금강승 수행은 고통과 질병도 깨달음의 자원으로 본다. 질병을 수행의 기회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이 깨달음의 자료이다.

그는 다 읽고 난 후 저절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책, 산티데바(Shantideva)스님의 <입보리수행

론>을 번역했다. 번역하면서 그는 '하루종일 기도한 느낌'을 받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짓었다고 했다.

공성수행 위한 교재 개발 절실

김영로 선생은 마지막으로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세가지 제안을 덧붙이며 말을 끝맺었다. "첫째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도 많은데 영어를 모르면 이 귀한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둘째는 티베트 불교 연구소를 세워 로종(마음수행)과 람림(깨달음)의 길의 단계), 바르도 퇴돌(티베트 사자의 시)을 도입해야 합니다.

람림과 같은 안내서가 없다는게 우리 한국불교의 취약점이며,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격을 갖춘 스승의 바른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수행도 절실합니다. 그래야 자살을 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째로는 공성수행(깨달음)을 위한 쉬운 교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공성은 불교의 가장 높고 심오한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글=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김영로 선생이 그동안 펴낸 저서들과 현재 공부중인 불서들이 그의 서재에 꽂혀 있다.

전법일기

운불련, 빈 택시의 법문

대전의 포교당에서 지낼 때 운전기사불자연합회(운불련)법회를 1년 동안 맡게 되었다. 외부법회는 보통 한 두 차례 보아주고 마는데 운불련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1년간 법회를 보게 된 것이다. 당시 기사불자들은 택시의 가, 나, 다, 라의 4개 조로 편성된 영업 일자로 인해 각각의 쉬는 날에 맞추어 4일간 계속 같은 내용의 법회를 해야 했다. 그런데 4일을 계속 한 스님께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스님을 모시기도 여의치 않았다. 그런 사정을 들으신 은사스님께서 나에게 1년간 법회를 맡아서 봐주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운불련의 회장과 임원들이 인사를 왔다. 회장님을 비롯한 운불련 불자들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겸손하며 부드럽고 따뜻하였다. 대부분 신심도 충실하고 교리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었다. 한 분은 운불련 법요집을 편집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만큼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갖고 있기도 했다. 다들 신심이 있고 교리에 밝을 뿐 아니라 택시운전을 하며 세사사 많은 경험을 한 분들이라서 속에서 은근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첫 법회를 보는 날 법사를 모시러 택시가 왔다. 여러 차례 법회를 다녀왔지만 그렇게 차를 가지고 온 경우는 처음이었다. 비록 택시였지만 법회에 가는 마음이 무척 가볍고 기뻐다. 법회분위기 또한 활기차고 힘이 넘쳤다. 굵은 남성들의 염불 소리가 자신 있고 우렁차게 법당을 울렸다. 대부분 남성인 기사들과 부인 및 가족들이 함께한 법회라서 여성들이 중심인 일반사찰의 법회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4일 동안 같은 법문을 하면

원력 없으면 삶만 피곤해져



그림·박구원

1년간 대전운불련 법회 법문 맡아 어느날 잊지 못할 법문 한가지 청탁 “손님 모시듯 인생도 목적 갖고 살자”

서 첫 법회를 하였다. 법회를 하면서 임원들과 상의하여 목탁 및 의식교육을 하기로 했다. 각 조별로 법회를 볼 때 목탁을 치는 법과 염불의식이 차이가 있어 통일을 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 달간 1주일에 1~2회 시간을 내어 목탁과 염불의식을 교육했다. 그런데 세로 배우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을 고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완전하게 교정이 될 때까지 거듭 반복하여 교육을 했다. 이 때 이후로 목탁 및 의식교육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있다. “누가 묻거든 주경스님께에서 배웠다고 해도 좋습니다. 단, 제가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제가 배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어느 날 운불련 불자중 한 분이 택시기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만한 딱 좋은 법문을 한 가지 해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해왔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빈 택시의 법문’이다. “운불련 기사님들은 신호와 법규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시죠, 하지만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하루종일 쉬지 않고 다닌다고 해도 승객을 태우지 못한다면 수입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자로서 목적과 원력이 없는 하루하루와 일생은 피곤하기만 할 뿐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운다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운불련 기사님들은 늘 귀한 손님을 모시듯 그날그날 또는 해마다 일생을 이롭게 할 좋은 목적과 원력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1년간 법사를 맡은 동안 시내에 나가면 언제나 운불련 택시를 만나곤 했고, 그때마다 대전시내에 불자들이 가득한 듯 느꼈다.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신심과 자신감이 가득한 운불련의 표어이자 상징이다. 지금도 운불련과의 오랜 인연이 귀하게 이어짐에 감사한 마음이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에 의하여 말하고 나의 가르침과 같이 도를 수행하면 곧 보리를 성취하고 다시 마의 장난이 없느니라.”

육도(六度)와 삼현십지(三賢十地)의 수행이 다 들어 있고, 삼제(三諦: 空·假·中)를 총섭하여 가르쳐주는 부처님 말씀 수능엄경.

최신간
(완간)

수능엄경(首楞嚴經) |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新 사고思考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한문과 천자문, 그리고 불교이야기를 풀어낸 바로 그 책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는 이야기 천자문이다.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 쉽게 엮어내었다. 참나를 찾는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보는 천자문 이야기는 깨달음으로 가는 해탈의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준다.

천명일 저음 | 신국판 | 536쪽 | 값 18,000원 지혜의 나무

절로 가는 길

절이 지닌 의미와 깨침의 미학

심신心身의 모든 감각과 마음까지도 환히 깨닫는 절 이야기

사찰은 본래 우리 내면의 각성세계를 밖으로 잘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사찰의 안과 밖의 참 면목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만나게 되듯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내하며, 사찰의 구조적 풍광과 모든 조형의 조각물들이 모두 문자로 보이고, 행색의 도상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 해준다.

천명일 저음 | 신국판 | 597쪽 | 값 20,000원 지혜의 나무